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대학교육의 새로운 발전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교협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학문 세계의 변화에 따라 20주년을 계기로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은 제도라기보다 인간이다. 산업사회는 제도 중심으로 사람이 제도에 적응해야 했다. 그러나 지식이란 예로부터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지식사회로의 이행이란 인간이 앞으로 사회의 중심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사회로의 이동은 그 대표자인 '교육된 사람'(The Educated Person)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문제를 제공받아 이들을 통합해 가는 힘을 창출해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모든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대학의 지식 생산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대교협은 첫째, 대학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 개혁의 중의를 도아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전통적인 학교 제도는 세계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며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020년경이면 오늘날과 같은 학교 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근대 학교 제도가 만들어질 때의 지식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혁명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식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식정보량이 4~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제는 1년에 두 배 또는 세 배씩 증가한다고 한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류 지식의 총량은



김 성 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대학교협은
대학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 개혁의 중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10년 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교의 지식보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적능력과 정보를 지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지적능력이 지식사회에서 중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전통적인 의미의 지식은 세계를 일목 요연하게 인식, 표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정론적 세계관'에 의한 '주제적 지식' (Subject Knowledge)이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에 따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모든 지식이 '결정론적 세계관'에 의한 주제적 지식일 수만은 없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은 전통적인 주제적 지식과는 달리 폭발하는 정보와 지식의 신속성, 다양성, 복잡성, 중첩성 등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상호연계적 지식' (Networking Knowledge, Cross-linked Knowledge)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지식의 양적 팽창이 또 다른 지식생산의 동기를 형성함에 따라 상호연계적인 지식과 함께 거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방법론적 지식(Process Knowledge)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체 학습 환경의 다양화에 따라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얼마든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 시간표의 제한을 받는 학교에서 전일제 학습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지식사회에서는 사회와 세계가 곧 캠퍼스이기 때문에 지식사회에서의 전일제 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중심적 요소를 제거한, 다시 말해서 학교의 형편 또는 교수의 업무 계획에 따라 편리하게 결정하거나 임의로 학습자를 시·공간적으로 제한하는 현재의 대학 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학습 체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세계의 변화 속도와 학생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학습 환경 및 평생학습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수업 연한을 축소하는 개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수업 연한을 축소, 조정하는 교육개혁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은 일, 생활, 놀이와 통합된 사회통합적 지식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대학 체제를 과감하게 개편해서 사교육비는 물론 국가의 교육재정 낭비를 막고 지식생산 연구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학이 지식 생산기지가 되도록 연구와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 지배 전인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식 생산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화가 되지 않고 5,000년을 독자적인 문화지식국가로 발전하여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에도 학문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한계 때문인지 창조적인 지식 생산보다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 특히 서구 지식을 전달하고 소비하는 경쟁에만 몰두하여, 학문연구의 자주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지적 비용을 외국에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지식 소비 위주의 학문 풍토는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와 사회 인식을 왜곡시키고, 삶의 양식을 서구에 의존하게 하여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기초학문의 위기, 특히 인문학의 위기를 염려하는데, 인문학의 위기는 연구비의 부족보다 인간의 목적과 사회와 자연의 원리를 다루는 인문학을 자유롭게 우리의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자주적으로 탐구하지 못한 결과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이 지식 소비에서 지식 생산의 창조적 산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에 안주하는 대학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터 드러커가 말했듯이 대학은 이제 '사회 속의 학교' (The School in Society), '파트너로서의 학교' (The Schools as Partner),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학교' (The Accountable School)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재**

대학이

지식 생산기지가 되도록

연구와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성재

한신대 민중연구소장,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이사, 새누리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한신대 신학부 기독교교육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